



# 수직고경 증가를 동반한 전악 보철 수복 증례

이미란\* |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65세 여성 환자로 전치부 치아 레진 수복물의 반복적 탈락 및 불량한 심미, 심한 치아마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특이할만한 전신질환은 없었고 5년전 상하악 구치부 고정성 보철물을 시술받았으며, 야간에 bruxism이 없다고 하였다. 구강외 검사시 비정상적이거나 비대칭적인 소견은 없었다. 또 TMJ에 대한 동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구강내 검사시 하악 치아의 cupping이 관찰되었고 #34, 35 치아는 치수가 노출되기 직전이었다. #37 치아 타진시 동통을 호소하였다. #46치아의 이차우식이 확인되었다. 방사선학적 검사시 #26은 불완전 근단 충전 상태였으며 periapical rarefying osteitis 소견을 보였다. #28은 supraeruption된 상태였다. #34,35의 마모로 인한 심각한 법랑질 상실 소견이 관찰되었다. #36, 37은 치근의 근접 및 #37의 이차우식 소견을 보였다. 46은 심각한 이차우식으로 인한 치근과 치관 분리 및 furcation involvement를 보였고, #47은 원심 치근의 apical 및 furcation involvement를 보였다. 심각한 치주질환의 증거는 없었으나, 전치부에서 mild한 수평적 골흡수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직고경 평가 결과 전치부 deep bite를 해소하고 적절한 하악 임상치관의 길이를 부여하기 위해 2mm 수직고경 증가가 필요하리라 사료되었다. 미소선을 평가시 치은연의 대칭성이 존재하였고 상순과의 관계에서 치은연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었으며 마모로 하악치아의 치은변연이 보였다. 구치부 지지가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고 전치 및 견치유도도 존재하였으나 다수의 치경부 레진수복물의 존재 및 전치부 파절양상, 잔존치아에 존재하는 다수의 crack line을 보여 parafunctional habit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리라 사료되었다. 또, 치주 질환의 증거는 없었으며 환자의 구강위생 상태는 양호하였다.

우선 parafunctional habit의 존재유무 판별 및 수직고경 증가 시 환자의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진단 모형상에서 수직고경을 2mm 증가시켜 제작한 CR splint를 6주간 장착하도록 하였다. 장착 후 주기적으로 환자가 내원토록 하여 마모의 증거나 적응도를 관찰하였고 정상적인 치아의 형태나 교합면 형태를 재형성하여 보철수복계획을 세우기 위해 2mm 수직고경이 증가된 상태에서 진단적 왁스업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심미적인 치열을 갖기 원하였으므로 전악보철수복을 제시하였고 치료에 응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악 보철수복을 진행하였다. 이때 하악 우측 구치부 (#46, 47)는 임플란트 식립 후 고정식 보철물로 수복하기로 하였다. 골다공증이 있으므로 #46, 47 발치 후 치유기간을 길게 잡아야 하고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상악 우측 구치부 보철물은 하악 수복시까지 유지하였다가 추후 상하악을 함께 수복하기로 하였다.

치료진행 결과 환자의 심미적 만족감이 증가하였고 보다 안정적인 교합양상을 보였으며, 1주일, 1개월 뒤 재내원시 전반적인 구강위생상태는 양호하였고 저작과 발음시 불편함도 호소하지 않았다. 교합검사 및 치아의 동요도 여부, 도재파절 및 도재금속관 탈락 유무를 검사한 결과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악 설측에 치태 침착이 발견되어 간단한 잇솔질 교육을 시행하였다.